

월요논단



남 동 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에비역 해군 준장

한화오션, 美 필리 조선소 인수의 의미

한화오션은 지난해 5월 한화그룹이 옛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회사로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한화 방산 계열사 가운데 하나이다. 해양사업, 상선사업 및 군함을 건조하는 특수선사업이 주력이며, 기술 중심의 우수한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 기업을 지향하면서 미래 해양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한화오션이 지난달 21일 노르웨이 에너지 업체인 아커로부터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해 있는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약 1390억 원에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은 물론 컨테이너선 등 미국 내 대형 상선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양풍력설치선을 비롯해 다목적훈련함도 건조하고 있다. 민간 상선과 특수선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조선소다.

한화오션의 美 필리 조선소 인수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1950년 미국의 해양실습선을 구입하여 전후할 수 있는 함정으로 개조한 후 도입한 백두산함으로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대한해협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대한민국이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미국의 전력 증강 사업 등 미국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조선소를 인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어느 국가도 실현해 내지 못한 역사적인 대업을 이룬 것이다. 둘째, 중국과 해양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미국을 상대로 선박 건조사업과 함정 정비사업은 물론이고 함정 건조사업에도 진출해 국력을 높이고 국익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 일류 국가인 미국 시장의 진입은 전 세계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보증수표나 다름없다. 필리 조선소 인수는 미국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글로벌 선박이나 방산시장 선도가 가능하며, 수출 영토를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는 것이다. 한화오션의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는 성공을 100%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국내에서 올해 예정된 수상함 사업(울산급 Batch-IV, KDDX 등)과 잠수함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내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고, 해외에서 그동안 방산시장을 선도해 온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뛰어난 업체들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수주 경쟁에서의 승리와 미국 시장 진출의 염원을 꼭 이뤄내기를 응원한다. 이는 한 방산업체의 큰 꿈을 이루는 것을 뛰어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실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사설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 원인 정확히 밝혀야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하수 오염물질인 질산성질소 환경기준(10mg/L)을 초과한 곳이 여러 관점에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서부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질산성질소가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9배 높은 농도를 보였다. 제주도가 서부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오염원 분석에 나서 주목된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24 상반기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결과 도내 지하수 관정 131개 중 8개에서 질산성질소가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관정은 제주시 한림읍·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 등 모두 서부지역이다. 지역별 질산성질소 농도는 서부가 L당 5.9mg/L)와 남부, 북부(각각 1.5mg/L)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난다.

제주도는 환경부의 '2024년 토양·지하수 지역현안 해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서부지역 오염이 심한 관정의 오염원 찾기에 나선다. 알다시피 서부지역은 지하수를 지나치게 많이 뽑아 쓰는 실정이다. 지하수 사용량(취수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어서다. 실제 한경지역은 지속이용 가능량이 월 173만3000톤이지만 취수 허가량은 463만8000톤에 이른다. 취수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의 무려 2.7배 수준이다. 한림지역도 취수 허가량(371만6000톤)이 지속이용 가능량(356톤)을 초과한 상태다. 서부지역의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데 수질까지 악화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 용역을 통해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열린마당

100세 인생의 보행 방법



권 진 미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계

어르신 5대 보행원칙은 횡단보도를 찾기, 횡단보도 앞에 서기, 좌우를 보기, 차가 멈추는 것을 기다리기,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너기 등이다. 어르신 5대 보행원칙이 어렵다면 딱 세 가지 '보다! 서다! 걷다!'를 기억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어르신의 야간 보행 시에는 밝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반사지가 부착된 지팡이 등 안전용품 가지고 다니기를 당부드린다. 보행자 스스로를 위한 여러 가지의 사고 예방 활동이 있겠지만 특히 밝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에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는 가사가 있다. 우리 관내 어르신 모두 100세를 넘어서까지 교통사고 없는 무탈한 나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해 본다.

최근 출생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그에 비해 노인 인구는 증가해 고령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초고령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없는 100세 인생을 위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 관내의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보행자 도로횡단단의 원칙, 어르신 교통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응원·협조 덕에 직분 무사 수행” 퇴임

풍수해보험 온실 가입률 2753%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를 보장해 주는 '풍수해보험'의 제주 지역 온실 가입률이 2753%인 것으로 나타나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 등 보상대상별 '모수' 대비 보험 가입률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제주 온실 가입률은 전국 평균(18.9%)을 크게 웃도는 2753%로 집계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행안부 관계자는 “온실의 경우 전국 공통으로 재해에 취약한 농가 표준형 온실 면적(24.44ha)을 기준 삼고 있는데, 제주도는 해당 면적의 온실이 적은 데다 섬 특수성으로 태풍에 더 강한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의 가입도 많아 가입률이 높은 것”이라며 모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 김지은기자

강 전 시장, 존경·감사 인사

○...지난달 28일 이임한 강병삼 제주시장은 '시민들에게 드리는 사회의 말씀'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응원·협조 덕분에 무사히 제주시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제주 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

강 전 시장은 “취임 당시만해도 '50만 시민의 빛'이 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민을 들겠다는 꿈이 있었다”며 “많은 분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를 시정에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연도 많아 한계를 실감했다”고 회상. 강 전 시장은 “이제 한 사람 구원의 시인으로 돌아가지만 제주시의 발전·번영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으로 응원할 것”이라며 “제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사랑과 소중한 경험은 시민 여러분께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천명. 현영종기자

협조체제 구축 절실한 '바다건너 서비스'

기상 악화시 제주에 고립된 관광객들의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다건너 서비스'가 시행되기 앞두고 있다. 홍보 부족에다 항공사의 수익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바다건너 서비스는 비행기와 여객선 연계 서비스로 비행기 결항이나 탑승권 매진 시 고립된 여행객 편의를 위한 대체 교통편인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여행객 입장에서 환영할만하다.

실제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일부 항공편 결항으로 고립된 여행객 21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심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객이나 제주도 입장에서 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제주도와 공항공사, 관광협회 등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공항공사 측이 회원사인 항공사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이라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조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안되면 이 서비스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제주 여행객들이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으로 고립되는 일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이 발이 묶이고, 상당수는 공항에서 노숙을 감수하기도 한다. 이상 기후 등으로 빈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행객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기 바란다. 여행객들이 즐거운 여행을 보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주도나 공항공사, 항공사 등이 우선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견도 크지 않은 만큼 관련기관이 적극 나서 활성화 방안을 찾기 바란다.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6월 28일 주주총원의 서면결의로 해산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4년 9월 3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7월 1일
주식회사 와이노타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도로 44(서귀동)
사내이사 나 효우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향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가족모지·문중모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지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장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주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